

2019년 6월 25일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나스닥, 바이오 업종 매물 출회되며 낙폭 확대 반도체, 산업재 상승 Vs. 바이오 부진

매물 출회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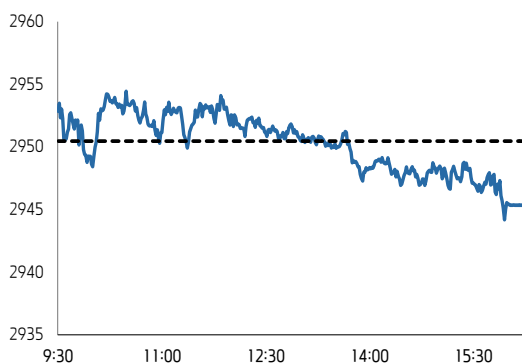
미 증시는 이란에 대한 제재 강화에 대한 우려로 매물이 출회되기는 했으나,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모습. 시장에서는 최소한 지난해 아르헨티나에서의 휴전과 같은 일시적인 봉합을 할 것으로 전망. 이를 기반으로 미 증시는 종목 장세 이어짐(다우 +0.03%, 나스닥 -0.32%, S&P500 -0.17%, 러셀 2000 -1.26%)

미 증시는 변화가 제한된 가운데 종목별, 업종별 차별화가 펼쳐짐. 낙관적인 무역협상 기대속에 반도체와 산업재가 강세를 보인 반면, 연초 발표되었던 브리스톨마이어스(-7.42%)와 셀진(-5.50%)의 합병이 지연될 수 있다는 소식과 간암 치료제인 Opdivo의 부정적인 3상 시험결과 소식이 전해지자 바이오 업종 부진으로 나스닥의 하락이 컸음.

한편, 이번 주 레나르(25일), KB 홈(26일) 등 주택건설업체를 비롯해 페덱스(25일), 마이크론(25일), 나이키(27일), 액센츄어(27일), 제네럴 밀(26일) 등의 실적이 발표됨. 그 중 마이크론, 나이키와 페덱스의 경우 미-중 무역분쟁과 관련된 매출 피해 등을 언급 할 수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음. 시장 조사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S&P500 기준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0.3% 감소한 데 이어 2분기 또한 전년 대비 2.6%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는 등 무역분쟁으로 인해 미국 기업들의 이익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전망.

이런 가운데 S&P500 기준 12개월 Fwd PER 이 16.8 배를 기록해 5년평균(16.5 배), 10년 평균(14.8 배)을 넘어서는 등 밸류에이션도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점도 부담. 특히 IT 업종의 경우 1분기(yoy -6.3%)에 이어 2분기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2.2% 감소할 것으로 전망. 12m Fwd PER 도 19.3 배로 5년평균(16.9 배), 10년 평균(14.9 배)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 그러다 보니 미 증시는 이러한 부담을 야기시켰던 미-중 무역분쟁 완화가 확실시 되기 전에는 적극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126.33	+0.03	홍콩恒生	28,513.00	+0.14
KOSDAQ	717.69	-0.68	영국	7,416.69	+0.12
DOW	26,727.54	+0.03	독일	12,274.57	-0.53
NASDAQ	8,005.70	-0.32	프랑스	5,521.71	-0.12
S&P 500	2,945.35	-0.17	스페인	9,192.50	-0.38
상하이종합	3,008.15	+0.21	그리스	849.35	+1.27
일본	21,285.99	+0.13	이탈리아	21,284.10	-0.4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바이오 업종 부진

브리스톨 마이어스(-7.42%)는 간암치료제인 Opdivo의 부정적인 3상 시험결과 소식이 전해지자 급락했다. 한편, 브리스톨마이어스는 셀진(-5.50%)과의 합병을 3분기에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번 임상시험 결과로 합병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로 미뤄질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셀진도 급락했다. 이 영향으로 암젠(-1.22%), 알렉시온(-4.09%), 바이오젠(-1.33%) 등 대부분 바이오 업종은 부진했다. 이번 주 실적을 발표하는 페덱스(-2.69%)는 미-중 무역분쟁과 유럽 경기 둔화로 매출 감소 가능성을 제기하며 목표주가 하향 조정 소식이 전해지자 하락했다. UPS(-2.40%)도 동반 하락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낙관적인 전망이 이어지며 브로드컴(+1.90%), 인텔(+0.36%), 쉘컴(+0.61%) 등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였다. 다만 마이크론(-0.18%)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매물 출회되며 하락 전환했다. 캐터필라(+0.36%), 디어(+1.58%) 등 기계 업종과 3M(+0.02%) 등 산업재도 동반 상승했다. 보잉(+0.58%), 유나이티드테크(+1.11%), 록히드마틴(+0.17%) 등 방위산업체는 미국의 대 이란 제재 강화 소식으로 상승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1.39%	대형 가치주 ETF(IVE)	-0.34%
에너지섹터 ETF(OIH)	-1.59%	중형 가치주 ETF(IWS)	-0.46%
소매업체 ETF(XRT)	-1.54%	소형 가치주 ETF(IWN)	-1.35%
금융섹터 ETF(XLF)	-0.40%	대형 성장주 ETF(VUG)	-0.28%
기술섹터 ETF(XLK)	+0.19%	중형 성장주 ETF(IWP)	-0.67%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56%	소형 성장주 ETF(IWO)	-2.07%
인터넷업체 ETF(FDN)	-0.94%	배당주 ETF(DVY)	-0.35%
리츠업체 ETF(XLRE)	-0.50%	신흥국 고배당 ETF(DEM)	-0.04%
주택건설업체 ETF(XHB)	-0.32%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07%
바이오섹터 ETF(IBB)	-2.13%	미국 국채 ETF(IEF)	+0.35%
헬스케어 ETF(XLV)	-0.52%	하이일드 ETF(JNK)	-0.10%
곡물 ETF(DBA)	+0.18%	물가연동채 ETF(TIP)	+0.19%
반도체 ETF(SMH)	+0.19%	Long/short ETF(BTAL)	+0.8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66.21	-0.93%	+3.25%	+3.09%
소재	363.43	+0.45%	+1.63%	+8.06%
산업재	648.24	-0.23%	+2.75%	+4.54%
경기소비재	943.98	-0.51%	+0.76%	+4.98%
필수소비재	605.09	+0.27%	+0.58%	+2.41%
헬스케어	1,079.75	-0.50%	+2.13%	+4.43%
금융	450.77	-0.33%	+0.99%	+1.43%
IT	1,377.33	+0.15%	+3.30%	+7.33%
커뮤니케이션	165.75	+0.11%	+1.75%	+2.08%
유틸리티	309.64	+0.02%	+1.53%	+2.56%
부동산	233.24	-0.46%	-0.69%	+2.7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낙관적인 무역협상 기대 지속

MSCI 한국 지수 ETF는 0.20% 상승했으나, MSCI 신흥 지수 ETF는 0.14% 하락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도(-76 계약) 속 0.30pt 하락한 275.40pt로 마감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53.54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의 특징은 바이오 업종이 부진한 반면, 반도체, 산업재가 강세를 보이는 등 업종별 차별화가 이어진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낙관적인 전망이 이어진 가운데 종목별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 결과로 추정한다. 결국, 미 증시는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최소한 휴전을 예상하는 등 낙관적으로 보고 있음을 반증한다. 이는 한국 증시에 긍정적이다. 한국 수출 부진에 따른 실적 둔화는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한편, 북미간의 관계 개선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북한의 경우 2018년 공산당 전원회의에서 '경제총집중' 노선 발표 이후 세대교체를 이루는 등 개혁 개방 속도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보이고 있다. 미국 또한 과거와 달리 극단적인 북한 압박을 하기 보다는 한 발 물러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두 나라의 움직임은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기대를 더욱 높인다는 점에서 달러/원 환율 안정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이 이어질 수 있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미 증시 특징처럼 차익매물 출회 가능성이 높으나, 반발 매수세 유입으로 낙폭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지역 연은 지수 지속적인 부진

6월 달러스 연은 지수는 전월(-5.3)이나 예상치(-1.0)을 크게 하회한 -12.1로 발표되었다. 달러스 지역은 에너지 산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국제유가 및 천연가스, 가솔린 가격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세부항목을 보면 신규수주(2.4→3.7)와 제조업생산(6.3→8.9)는 개선되었으나 설비가동률(15.6→7.7), 고용지수(11.6→8.8) 등은 부진했다.

5월 시카고 국가활동 지수는 전월 발표치(-0.48)나 시장 예상치(-0.18)보다 양호한 -0.05로 발표되었다. 3개월 평균도 전월(-0.37)보다 개선된 -0.17로 발표되었다. 다만,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 미국 경기 개선이 주춤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는 미국이 대 이란 추가 제재 발표 여파로 상승 했다. 더불어 러시아 에너지장관이 OPEC 정례회담에서의 원유 감축안을 지지한다고 발표한 점도 상승요인이었다. 이를 감안 7월 1~2일 있을 OPEC 정례회담에서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 기간 연장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국제유가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달러화는 경제지표 부진으로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 주 뉴욕 연은지수,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에 이어 달러스 연은 지수도 큰 폭으로 부진하자 7월 1일 발표되는 ISM 제조업지수 부진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점이 영향을 줬다.

국채금리는 경제지표 둔화와 이란 발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으로 하락 했다. 특히 옵션시장을 기반으로 한 CME FedWatch 에 따르면 7월 금리인하 확률은 100%이며 50bp 인하 확률이 40.5%로 급증해 시장참여자들은 50bp 인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한편, 중도매파 성향의 카플란 달러스 연은 총재는 “무역 분쟁으로 인한 경기 둔화가 이어지고 있는지 판단을 내리기에는 너무 이르다. 이를 감안 금리인하가 확실하다고 말하기는 이르다” 라고 주장 했다. 지난 주 금요일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과 브레이너드 연준이사가 “금리인하 논리가 강화되었으나 즉각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할 필요가 없다” 라고 주장한 데 이어 카플란 총재도 같은 발언을 했다. 그러나 연준위원들의 발언은 영향이 없었다.

금은 미국의 대 이란 제재 강화 소식으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자 상승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 및 낙관적인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속에 상승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보합을 보였으나, 철근은 1.74% 상승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57.90	+0.82	+10.98	Dollar Index	95.989	-0.24	-1.61
브렌트유	64.86	-0.52	+6.43	EUR/USD	1.1399	+0.26	+1.61
금	1,418.20	+1.29	+5.61	USD/JPY	107.28	-0.04	-1.16
은	15.461	+0.59	+3.75	GBP/USD	1.2740	+0.02	+1.64
알루미늄	1,793.00	+1.44	+1.96	USD/CHF	0.972	-0.46	-2.71
전기동	5,960.00	-0.18	+1.97	AUD/USD	0.6962	+0.52	+1.59
아연	2,491.00	+2.38	+0.85	USD/CAD	1.3181	-0.31	-1.73
옥수수	457.25	+0.83	-2.40	USD/BRL	3.8265	+0.11	-1.79
밀	542.50	+2.21	-0.05	USD/CNH	6.8762	+0.16	-0.79
대두	932.75	+0.57	-0.72	USD/KRW	1156.50	-0.64	-2.53
커피	103.00	+2.33	+4.83	USD/KRW NDF1M	1153.54	-0.37	-2.69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2.016	-3.80	-7.82	스페인	0.405	-2.80	-11.80
한국	1.565	-0.50	-5.70	포르투갈	0.522	-5.20	-11.30
일본	-0.154	+0.20	-3.10	그리스	2.408	-11.20	-29.60
독일	-0.307	-2.20	-6.30	이탈리아	2.151	+0.50	-14.50